

특 집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세미나
IAEA, 과기처 주최/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관
10월 26, 27일/세라튼워커히호텔

原子力産業과 言論

이 용 수

동아일보 편집위원

국내 원자력산업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에너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부재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마저 겹쳐 국가의 원자력정책은 아직까지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사업자와 반핵 반원전단체들간에 원자력사업을 둘러싼 상반된 인식으로 사회불안까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정책은 국제 유가의 잦은 변동과 공급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따른 국제적 규제의 강화 등으로 더 이상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고 있는 현실에서 확고한 에너지정책의 부재는 진실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사회분쟁 조정자로서 언론은 그 역할이 막대한 데도 이를 종합 증재하여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언론이 원자력을 보는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언론은 어떻게 기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과학문명과 언론

과학문명의 일차적관심이 자연 현상과 그 법칙의 발견인 반면 언론의 바탕은 사회요 대중이다. 그러나 과학과 사회는 전혀 무관한 분야가 아니다. 과학기술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생각마저 바뀌가는 건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예를 우리는 산업혁명에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산양식이 달라지고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던 사회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변화를 가리켜 사람들은 「혁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혁명을 거친 후의 산업사회를 넘기면서 이제는 정보화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은 시대적

구분을 달리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의 변화는 외형적인 사회구조만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회구성원의 궁극적인 의식의 변화까지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만큼 빠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문명발달과 거리를 두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의식 사이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화정체현상은 새로운 문명의 위기로까지 해석되기도 한다. 문화정체현상의 심화는 인류를 위해 태어난 과학기술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불안조차 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체의 현상은 비단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대중사이에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를 모두 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장애와 단절을 가속, 심화시켜 외로운 문맹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발달은 동시에

정보 및 통신기술을 발달시켰고, 통신기술을 통해 대중매체가 탄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언제나 새로운 정보와의 접촉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정작 문명발달의 주역인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대화는 별도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이 대중속에 파고 들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났다. 과학기술과 언론을 동시에 관련지어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의 전부가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이해는 절대적인 전제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놀라게 발전하였으나 그것의 폐해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사회에서 과학기술도 이제는 대중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원만하게 발전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언론은 원래부터 대중을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 체계다. 대중(mass)이란 그들간에 서로의 대면이나 교류가 없이 익명의 존재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게 될 때는 공중(Public)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과 같이 사람에게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보도내용이 처음에는 대중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대중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나 분명한 입장을 가진 공중이 형성되곤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각각의 전문가들의 영역을 떠나 일반대중에게 이해되고 음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언론이 현대의 대중사회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위해 존재한다면 현대문명사회의 주역인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도 대중의 알 권리와 지식의 보급을 위해 원자력과 같은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올바로 인식하고 사회적 정보전달자로서 문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과 언론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언론

원자력의 본질은 에너지물리학과 분명히 과학기술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분야는 언론은 물론 대중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속에서 이를 의식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원자력발전부문은 그 원

리와 응용에 있어서 일반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전연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원자력이 처음으로 인류에게 이용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뇌리에 자리잡게 된 계기가 핵폭탄이란 무기였다. 이 때문에 원자력은 일반 대중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결과적으로 「원자력은 이해하기 어렵고 무섭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1991년 7월,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원자력」이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었다(52.5%).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다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 1년간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94.4%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원자력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능과 언론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짐작

케 하며 또한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언론매체를 접촉한 결과 「원자력에 대해 그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비율(34.8%)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비율(27.9%)보다 많았다. 이것은 물론 언론의 보도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원전의 고장, 사고, 부정, 피해, 시위 등 이른바 기사 거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 아무리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대중은 나쁜 측면에 대한 내용에만 더 흥미가 있어 하고 또 이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 대중들이 정보를 접하는 주요 매개체는 TV/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은 원자력의 필요성이나 이점 등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TV/라디오 21.9%, 신문/잡지 16.1%) 고장 사고 등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TV/라디오 29.4%, 신문/잡지 34.1%).

대중매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원자력 지식을 접하게 되는 주 정보원이고 그 신뢰도도 비교적 높은 편(TV/라디오 77.4%, 신문/잡지 79.4%)이어서 이들이 부정적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원자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가

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반핵 또는 환경보호단체로부터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사례가 그 비율은 낮으나(19.8%) 신뢰도는 매우 높게(84.0%)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또는 선전내용이 매우 확고한 부정적인 신념그룹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홍보전략에서 소외된 반핵 및 환경단체들의 과장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보는 시각에 따라 국민들을 ① 반핵 및 환경단체 ② 원전시설주변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 집단 ③ 순수한 일반대중 등 세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반핵 및 일부 환경단체들은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핵폭탄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의 존재는 생존권의 위협에서 인류절멸로까지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집단은 신념에 의한 행동집단으로 주로 언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퍼는 경우가 많다.

원전시설주변의 직접 이해당사자 집단들은 원전시설에서 비롯되는 건물피해나 영업권의 제약, 사유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 때문에 반원전그룹을 형성한다. 이들은 반원전 그 자체보다는 경

제인 손실 때문에 반원전그룹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때로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비치기도 한다.

진정으로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 대상이 되는 그룹은 직접 이해 당사자도, 반핵그룹도 아닌 일반대중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사업단체들(한진, 원자력연구소, 과기처, 상공부 등)과 반원전 운동단체들은 원자력에 대한 지지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들 두 집단 간에는 찬성·반대 의견만 무성할 뿐 무엇을 위한 반대이며 무엇을 위한 찬성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합일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대중매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원자력과 언론인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현장의 점검은 중요하다.

첫째, 원자력 기사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다. 특히 원자력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보편적인 대중인식을 축으로 하여 작성된 기사는 종종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령 원자연료의 정기적인 교체를 위해 운전중을 중지한 원전을

「원자연료 이상 원전 가동중지」라는 기사를 쓴다든지 미국의 TMI원전이나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을 같은 시스템으로 보도하는 오류는 전문지식의 부족이거나 취재부족의 결과다. 실제로 이러한 오류는 국내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둘째는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사작성의 기본 원칙은 철저한 객관적인 사실 보도에 있다. 그러나 사실, 특히 외견상 표출되는 여러 현상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사실을 보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것을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가령 원전주변지역에서 무늬아, 기형가축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의 무늬아, 기형가축의 발생만을 보도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원전의 위해성을 제공하는 기사가 된다.

셋째, 언론의 본질적인 속성은 고발성이 강하다. 설사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정책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외길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일반적 사안이라면 기사도 되지 않을 사고·고장 등이 항상 기자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분야에서의 특이한 관심사항이다. 그

것은 바로 원자력이 갖는 본질적인 위험성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한 가닥의 불안때문이기도 하다.

위험에 대한 대중적 인식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방사선 때문이다. 방사선은 우주의 탄생 이후 줄곧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 발산하는 에너지로서 항상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들은 이들 방사선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다만 오늘날 원자력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보다 강한 방사선이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원전에서의 방사선은 전기를 얻는 부산물이다.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은 질병의 진단이나 물질의 구조 연구에 이용된다.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암의 치료에 이용되고 그외 수십종의 방사선은 보건, 의료, 농업 및 산업분야에서 인류의 복지 와 번영에 이용된다.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 인공방사선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실수로 인간에게 재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혹시나 원전운영에 잘못이 있어 강력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소를 아예 위험한 것으로 단정해 버리게 만든 것이다.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 일반대중들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에 비해 실제의 위해도는 매우 낮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의 인식조사 결과와 실제로 나타난 사망원인 통계를 인용해보면 그 순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원전이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실제 통계자료에 나타난 사망원인으로서는 흡연이나 음주, 자동차사고의 위험에 비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고리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1990년에 작업상 피폭된 방사선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암의 경우도 자동차사고 사망률의 130분의 1, 흡연에 의한 추정사망률의 170분의 1에 불과하였다.

현대의 기술문명시대에 있어서 위험의 인식론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에서 야기된다. 삶의 구석구석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적어도 그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의 행위에 도전한다. 편익이 위험에 앞서며 그 위험은 과학기술, 안전장치, 인간의 주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자동차의 이용은 높은 사고율로 보아 객관적으로는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자동차운

미국인의 위험요인 인식순위

순 위	여성유권자 등명*	남 자 전문직장인*	대학생*	사망통계
1	원전	권총	원전	담배
2	자동차	오토바이	권총	음주
3	권총	자동차	담배	자동차사고
4	담배	담배	자동차	권총
5				강도
7		원전		
				방사선(20위 이하)

*송명제: 방사선은 몇 번째로 무서운가, 한전, 1993년 8월호

전을 회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더욱이 자동차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은 상당 부분이 관념적일 수 있다. 원전의 안전설계개념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거나 방사선의 관리방법을 일반대중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데다 그 내용은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반핵단체들의 주장은 「핵폭탄」, 「무너야」, 「기형송아지」 등의 몇마디 단어만으로도 반원전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원전에 대해 가지는 대중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들이 많다.

결국 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 원자력사업자나 정부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책은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일과

마리부터 원자력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수적인 요건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신뢰구축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으며 그 이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뤄져야 할 일들이다. 또한 학교교육은 원자력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에서는 언론이 이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다.

반핵과 언론

원자력이 인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한 반원전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원자력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최상의 에너지원이라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대중들 가

운데 원전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 항상 반핵, 반원전의 목소리만이 언론에 회자되고 하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다.

지난 92년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과학저널리스트대회에서 프랑스 「르 빠가르」신문의 과학부장인 모니크박사는 『오늘날 언론이 적어도 원자력문제에 관한 「그린피스」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 신문들이 사실의 확인이나 전문인의 평가도 없이 그린피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자력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가령 89년도의 영광 노모아사건이나 기형가축사건이 계속 원전에 의한 것인 양 반핵단체들에 의해 인용됨으로써 반원전의 분위기는 고취되었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들어서면 그 일대는 황폐화된다는 플래카드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핵단체들의 주장이 원전시설의 운영자들의 주장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더 잘 먹혀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뉴스원은 자연적으로 반핵, 반원전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원전시설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뉴스의 언저리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다.

맺음말

언론매체들은 사회의 공기로 서로 상이한 주장이 있을 때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도출은 한국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들은 국민간에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보다는 반원자력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결과적으로 반원전단체들의 입장지지라는 인상을 받게 만들었고, 또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객관적인 사실보도가 반원전물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원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한국언론의 원자력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을 성토하게 만들었고, 반원전단체들은 환경문제까지 곁들이면서 반원전홍보를 강화시키고 있다. 원자력사업자와 반원전단체간의 이러한 계속되는 상이한 입장은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의 장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결과를 낳

고 있다.

이제 언론은 한국에서 원자력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검증을 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념이다. 그 신념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과 통한다. 미국 TMI원전사고가 노심이 녹아내리는 원전 최악의 사고였는 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을 국민 모두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원전의 대부분이 이와 꼭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듯 원자력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작은 사건·사고 및 반원전의 논조에 동참하는 한 한국의 원자력사업은 어둠을 수 밖에 없다. 원자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이전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원전사업에 참여할 때 지역사랑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이 원자력피해 당사국으로써 세계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일본이 에너지문제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에너지정책이나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우리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